

# 개혁교회 예배를 위한 지침 (Part 3)

## - 율법, 죄의 고백, 사죄의 확신

By W. L. Breidenhof

trans. by Seok-Jun Yun

W. L. Breidenhof는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랭글리(Langley)에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의 동사목사이다.

이 글은 클라리온 2007년 YE 버전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사야 6장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강력한 본문들 중 하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떠한 연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는 천사적 창조물(스랍)이 외치는 것을 보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장소는 흔들렸고 연기로 가득찼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반응은 두렵고 떨림이었다-그는 자신의 죄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인식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를 자백했다.

오 늘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가 이런 경험을 동반한 시각적 효과에 감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혹시 우리가 멋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분명 그곳에서 스랍을 볼 수도, 땅이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연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던 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본성적인 결핍으로 인한 겸손함과 경건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D.G. 하트(D.G.Hart)와 존 뮤더(John Muether)는 그들의 책 “경외와 두려움으로(With Reverence and Awe)”에서 개혁교회 신자들의 예배가 그들의 신앙고백적 행위들(commitments)을 구체화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목한 바 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한 예는 창조주와 창조물과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하 나님을 그의 피조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대한 간격은, 하나님만이 홀로 무한하시고, 독립적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우리는 유한하고 의존적이다. 이 사실은 개인주의와 자기만족, 그리고 우리문화의 특성인 독단성을 막아준다. 그 대신 겸손함과 자기부인이 우리의 태도를 특징짓는 것이 될 것이다”(p.14).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이사야의 태도였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 율법의 낭독

하 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특별히 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이런 자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교리문답(제2주일)에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된다고 고백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비천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한 엄청난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필요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필요성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지속된다.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각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에 우리의 완전한 의존을 두어야 할 항구적인 필요성을 가진다.

이 러한 이유로, 도입부의 각 요소들 다음에 우리는 십계명을 낭독한다. 이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모두에서 행해졌다. 십계명은 항상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다른 “율법”의 본문들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부정기적으로만 행해졌다. 그러나 우리 회중들의 대다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와 단순성 모두를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 22장 37-40절의 말씀이 부기되어 있다.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다른 본문들은 신명기 6:6-9, 누가복음 10:25-28, 마태복음 5:48등이다. 무슨 본문이든, 혹은 어떤 본문이 선택되었든, 목적은 동일하다: 회중들이 그들 자신의 의에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을 법낭독 후의 찬송은 그 본문을 보충해 주어야만 하다. 전통적으로 기도가 찬송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율법에 대해 두 부분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목사에 따라 약간의 유동성과 창조성이 존재한다. 찬송은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시편 19편 3절). 그리고 그 후의 기도는 죄의 자백과,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원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또는 찬송이 죄에 대한 고백이 되고(예를 들어 시편 51편),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표현이나 그의 복주심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찬송이 어떤 방식으로든 율법낭독의 보충이 되거나, 회중의 반응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 죄의 고백

더 나아가 동일한 관점에서, 그것이 찬송이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율법 낭독에 대한 반응으로서 죄의 고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러한 고백들의 수많은 예를 본다. 그리고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 왔다. 자백하는 기도는 개혁자들이 교부시대와 중세시대의 교회로부터 유지해 온 또 다른 요소이다. 개혁자들은 그것이 전통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건전한 성경적인 예로 인식했다.

공 예배에서의 죄의 고백에 대해 자주 잊혀져 온 것이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활동이 우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죄의 고백은 협력적이다. 주일에 행하는 고백적인 기도는 우리가 매일의 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그 고백은 회중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예배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국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강조점은 그 몸에 있다.

## 사죄의 확신

고백의 기도 이후에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위한 준비로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직접 넘어간다. 만약 죄의 고백이 특별하게 진지하게 인식되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적 불협화음을 낳는다. 갭이 생기는 것이다.

종교개혁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갭은 목사가 회중의 죄악들이 참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공포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성경본문을 읽는 것으로 채워졌었다. 목사 자신이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이 하나님에 의해 용서되었다고(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죄의 확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는 회복될 가치가 있는 것이며, 특별히 만약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진지하게 행했다면 더욱 그러하다. 당신 자신의 의가 무장해제되고, 십자가로 달아나 매 주일마다 다시 또 다시 복음의 위로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성경에는 이 목적에 걸맞는 다른 본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 몇 가지만 쓰자면, 요일 1:9, 행 10:43, 히 7:24-25.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불경스럽거나 기계적인 것이 되어버릴 위험으로 달려가게 된다. 이 부분의 요소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복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크고 강하신 야웨를 예배하는데 있어 결코 경박스러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

## 추천할 만한 책

율법, 죄의 고백, 사죄의 확신에 관하여 더 읽기를 원한다면, K. Deddens의 “Fulfill Your Ministry”(Premier, 1990), pp.71-85를 보라.